말구유의 공격성

(눅2:1-7)

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말구유의 공격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게 구유는 구유인데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늘 입에 붙은 대로 <말구유의 공격성>.
말구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의 자기비하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극하신 겸손과 자기비하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말구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가 불과 10초 내에 잿더미가 돼버렸지만, 이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공격력과 폭발력을 지닌 것이 예수님이 뉘신 말구유라는 겁니다.
말구유가 예수님의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예수님의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겸손과 자기비하는 충분히 다 이뤄진

것이요, 자기비하를 말구유와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구유가 낮고 천한 곳이면, 진시황의 궁궐이나 로마황제의 궁궐은 높은 곳이겠네요, 그렇죠?
고관대작의 99칸짜리 집은 높은 곳이겠지요?
이런 시각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신앙인의 시각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말구유가 낮고 천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고관대작의 집이나 궁궐이 높고 귀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역사적인 정황은 이렇습니다.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은 우리의 이름과 직업과 재산 상태나 가족관계를 파피루스에 기록하면 그 기록을 보고 로마정부가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누락될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적정한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또 여자조차도 등록을 하게 되면 여자 머리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호적을 새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인간사회에 발을 들여놓으실 순간과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구스도 황제는 세금 때문에 그랬지만 전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사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것은 기존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그때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제국이 온 세상이죠,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다시 등재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것이 또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항상 말씀 앞에서는 두렵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쓰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데오빌로가 돼야 되는데, 데오빌로의 뜻이 '내 마음에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몸보다, 사업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장 친한 상태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친하게 지내는 이 상태가 다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파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합니다.
좋은 돌을 많이 캐낼 수 있는 채석장을 발견했습니다, 채석을 해나가는 중에 갑자기 돌무더기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건축 재료에 훌륭하게 쓰일 수 있는 돌이라도 금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돌을 다듬고 만들어서 건축 재료로 쓸 것이 아니라, 돌을 다 부서뜨립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인간사회에 발을 들여놓으시기 전에는 귀하게 여겨졌던 상태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다 부서져나가야 되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얼 부서뜨린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을 바로 말구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서져야 되는지, 무엇이 부서져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구원이라는 영원한 복락이 생성되려면 무엇이 부서져야 되는지, 말구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구유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말구유가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실 때, 아직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기 전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아버지와 성령님께서 함께 의논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인자이신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가야 될 텐데, 어디로 내려갈 것이며 누구의 배에

잉태될 것이며, 어디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다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세상에 내려가기로 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비하가 결정된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띠겠다는 예수님의 결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의 상태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력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도 없는 자기비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려올 때에, 내려오는 자기비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느 곳이 제일 적절하겠는가를 의논한다고 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아버지와 하늘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가치판단과 천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꾸 말구유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시황의 왕궁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로마황제의 궁궐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주 부잣집, 거의 준재벌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기대가 잔뜩 부풀었지요.
몇 가지 정말 값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나왔어요,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랬다는 느낌만 기억해요.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께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눈에 띠어요.
오이지를 냉수에 띠워놓은 것과 묵은지 씻어놓은 싱건지 그렇게 두 가지 하고 밥을 드십니다.
내 눈에 내 입맛에 맛있다고 하는 것에는 젓가락을 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갈비찜이라든지 귀한 생선요리라든지 이런 것에는 손을 안 대십니다.
부잣집 권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갈비찜과 도미찜 같은 것은 지금 입맛에 땡기지를 않아요.
진시황의 왕궁에 몇 천 배가 될까요, 천국의 좋음이?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말구유와 진시황은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 집 사모님께서 싱건지가 입에 당기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구유는 낮고 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의 시각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2000년 역사를 관통하면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뉘시면서 말구유를 통해서 히로시마에 터진 원폭과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부서뜨리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이 시각이 제가 추측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에게 '나처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보통사람이면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데오빌로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상태에 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하는 것인데, 말구유가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당신의 외아들을 제일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말구유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아이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왕에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에게 그 결정 자체가 자기비하이지, 그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것이 말구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준재벌집 사모님에게 싱건지가 제일 맛있는 것과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구유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자, 말구유에 예수님이 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제일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 뉘셨다는 것은 인간세상 인간사회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세상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과의 가치경쟁에 뛰어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귀하잖아요? 돈이 좋잖아요?
내 몸의 건강이 좋잖아요?

오복이 좋은 겁니다, 오복으로 인간사회의 가치를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사회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가치경쟁에 뛰어드신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돈과 경쟁하시려고 뛰어드신 것이고, 내 마음이 내 건강을 염려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염려하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쏟으라는 내 건강과 경쟁을 하려고 들어오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오복과 경쟁하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내 자식과 경쟁하시려고 들어오신 것이고,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배우자와 경쟁하시려고 이 인간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구유에 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했던 모든 가치들, 돈과 건강과 자식과 부모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내 인기, 성공, 이 모든 대상들이 다 말구유 밑이라는 얘깁니다.
다 말구유 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치경쟁에 뛰어들어 오셔서 말구유에 떡 누이셨다는 얘기는 전부 말구유 아래라는 얘깁니다.
이 말을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서 그동안 내게 좋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마구간에서 말구유보다도 못한 것이 말똥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동안 좋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구유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끼어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좋은 것으로 인정됐었어요, 건강이 좋은 것이고, 가족의 평화가 좋은 것이고, 돈이 좋은 것이고, 이 세상의 성공이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으로 인정됐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구유에 누우신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말구유보다도 못한 것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말구유는 다시 한 번 원자폭탄처럼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좋다고 여겨서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가졌다고 행복해했던 모든 가치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원자폭탄과 같은 공격성을 지닌 것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이 늘 품고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돈 문제, 건강문제, 자식문제, 이걸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들로 해(害)로 여겨진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자식 걱정하다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식이라는 것이 해가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구유보다도 못한 것이다.
첫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구유보다 특별이 나은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경쟁에 예수님이 뛰어들어 말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최고로 가치 있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세상의 가치가 말구유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구유가 부서뜨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를 부서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의미가 뭘까요?
세 번째 의미가 제일 중요한 의미일 수 있어요.
왜 말구유에 뉘셨을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정황에서 이유를 따져보자면, 호적 하러 온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붐비는 바람에 여관에 손님들이 꽉 차서 방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구유의 폭발적인 공격성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링거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사바늘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하늘의 링거가 내려와서 주사바늘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늘의 기운이 예수님이라는 주사바늘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소개되고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계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보따리들이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링거 주사를 꽂을 때, 예수님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바늘을 꽂기 전에 간호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묻은 솜으로 바늘로 찌르는 자리를 꼭 소독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늘로 찔렀다가는 그 주변의 균들이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코올 묻은 솜으로 소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바늘처럼 뚫고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간사회 안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 때에 인간사회에 속해있으면서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장소는 마구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사회 안에 속해있는데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바로 외양간입니다.
궁궐, 탐욕으로 마이더스 왕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금으로 변한 것처럼 인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간사회 안에서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은 없었어요, 오직 외양간은 동물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곳에는 인간의 탐욕도 인간의 어떤 죄악도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링거를 꽂으려니까 알코올로 소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구유에 뉘셨다는 그 의미가 무얼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끼어드시기 이전의 인간 세상 전체가 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규정해버리는 원자폭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이, 밭에서는 농부가,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 직원들이 심지어는 수위아저씨도 '나는 수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분의식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오직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를 황제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 죄인으로 규정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말구유사건이라는 겁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 오직 외양간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선언입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뒤집어씌워져 있다는 이 선언이 있고서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구유!
엄청난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공격성을 가지고 아기예수님이 뉘여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의미,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파괴해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파괴해버리시고,

온 세상이 다 죄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엄청난 공격적인 사건으로 이 공격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데오빌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구유에 뉘신 의미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데오빌로로써 태어나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